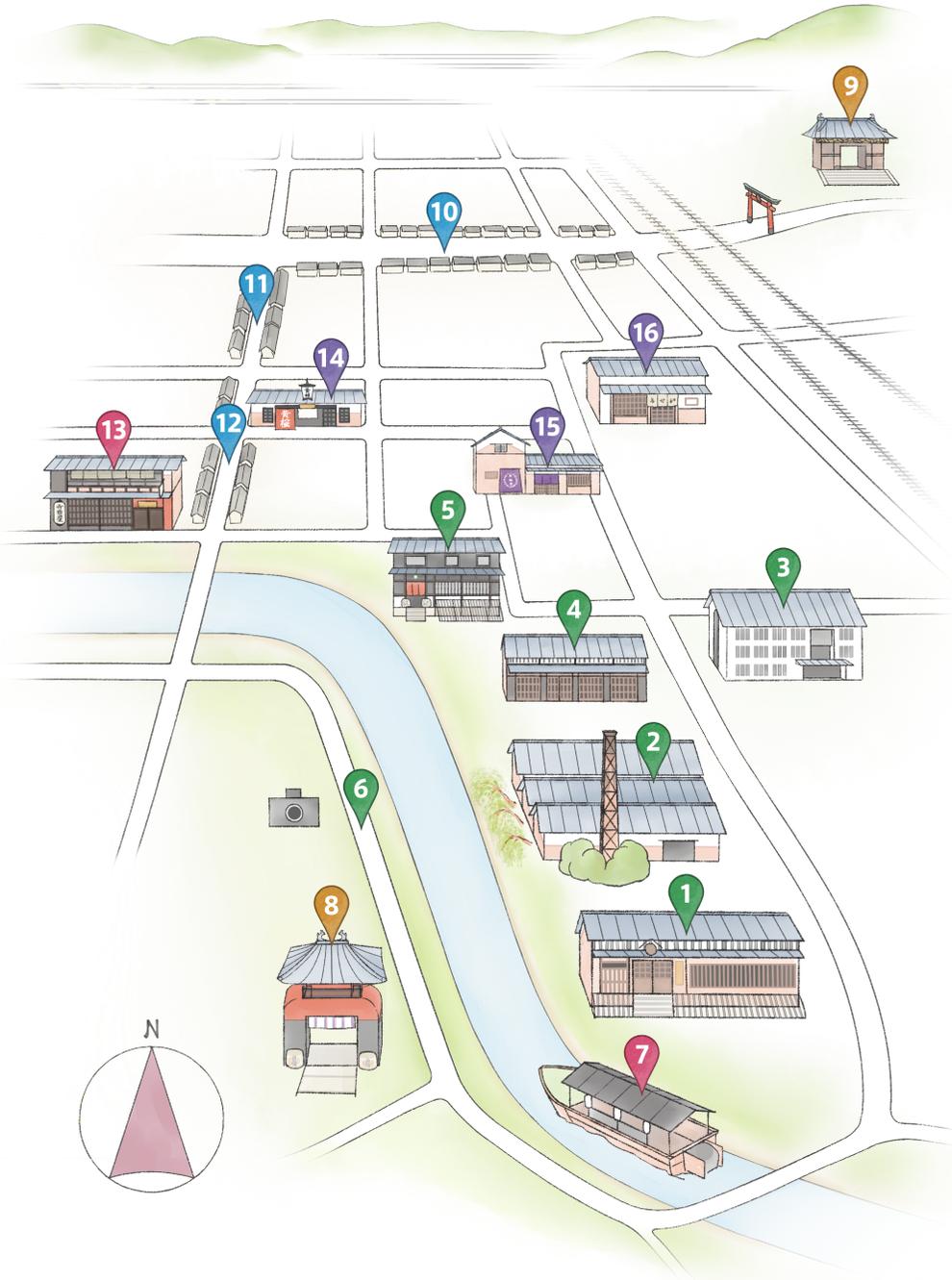




후시미 산책



- 1 월계관 오쿠라 기념관
- 3 월계관 본사
- 5 후시미 유메하쿠슈 월계관 옛 본점
- 7 짓코쿠부네
- 9 고코노미야 신사
- 11 나야마치 상점가
- 13 여관 데라다야와 옛 유적지
- 15 쓰키노쿠라비토

- 2 월계관 우치구라 양조장
- 4 오쿠라가 본가 비공개
- 6 호리카와에서 바라본 양조장 풍경
- 8 벤자이텐초켄지
- 10 오테스지 상점가
- 12 료마도리 상점가
- 14 기자쿠라자과킨추리
- 16 도리세이 본점

1 월계관 오쿠라 기념관

후시미의 주조와 일본 술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료관. 예전에 사용하던 주조용 도구와 창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견학 후에는 긴쥬슈의 시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월계관 본사

양조장을 이미지화한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사 주변에서는 에도·메이지·다이쇼·쇼와 각 시대의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5 후시미 유메하쿠슈 월계관 옛 본점

서양풍의 디자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이쇼 시대의 건축물로 오랜 시간 월계관 본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후시미관광협회가 '후시미 유메하쿠슈'라는 이름으로 카페, 기념품 판매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월계관 우치구라 양조장

'월계관 오쿠라 기념관' 근처에 위치한 우치구라 양조장. 예전 방법 그대로 술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4 오쿠라가 본가 비공개

1828년에 월계관을 창업한 땅에 세워진 양조장 겸 주택. 1868년에 도바 후시미 전투가 발발했지만 화를 면하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6 호리카와에서 바라본 양조장 풍경

사진 찍기 좋은 곳. 후시미성의 외호였던 호리카와에서 바라본 월계관 우치구라 양조장의 풍경은 교토·후시미 관광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7 짓코쿠부네

호리가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유람선 짓코쿠부네가 운항됩니다. 강을 따라 양조장, 오래된 숙박시설과 같은 역사적인 풍경과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버드나무, 벚나무 등의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벤자이텐초켄지

'섬의 벤자이텐'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초켄지. 용궁 양식으로 지어진 절 입구의 문과 붉은 담장이 이국적인 정서를 자아냅니다. 전원 중 다이고파의 불교 사원입니다.



9 고코노미야 신사

후시미를 지켜주는 신을 모시는 신사. 순산의 신이라 불리는 진구 향후가 제신. 본전과 절 입구의 문은 중요 문화재입니다. 도바 후시미 전투 때 신정부군인 사쓰마번이 주둔한 곳이기도 합니다.



10 오테스지 상점가

후시미모모야마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오테스지 상점가에는 상점과 음식점이 다수 모여 있어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테스지를 포함한 7개의 상점가가 부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11 나야마치 상점가

1909년에 만들어진 상점가. 식재료 판매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후시미의 부엌'과 같은 친숙한 곳입니다. 인도에는 화강암 석재를 깔아서 모던한 분위기의 아케이드를 연출하였습니다.



12 료마도리 상점가

여관 '테라다야'의 동쪽에 위치. 가로등과 돌길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막부 말 유신의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사카모토 료마 기념품 판매점과 음식점이 늘어서 있습니다.



13 여관 테라다야와 옛 유적지

사카모토 료마가 머물렀던 여관 테라다야. 사적 공원(史跡公園)으로 조성된 정원에서는 료마의 동상과 테라다야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을 명기한 비석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술 빛는 마을 후시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양조장의 모습을 잘 살린 음식점 겸 주점 (쿄후시미미쿠라카이)

14 기자쿠라갓파켄추리

맥주 공방을 갖춘 양조장 레스토랑. 바로 만든 맥주, 일본 술 '기자쿠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관내에는 '기자쿠라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5 쓰키노쿠라비토

월계관의 옛 양조장(다이쇼 시대의 정미소)을 활용한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일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만든 '자루두부'와 '월계관'의 술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16 도리세이 본점

지어진 지 100년이 된 술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도리세이 본점에서는 명물인 닭 요리와 일본 술 '신세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술통에서 바로 따른 '구라다시 나마겐슈(가열살균하지 않은 술)'가 인기입니다.

